선민의 성전 파괴적 영성

(이사야 20:1~21:17)

이사야 20장
5.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사야 21장
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2.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3.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4.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의 성전 파괴적 영성>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의 성전 파괴적 영성’
20장의 마지막 부분은 앗수르에 의해 구스가 지배하던 애굽이 망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일은 BC.670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21장의 앞부분에서는 열방에 관한 예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이 재차 언급됩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부분 11~12절에서는 에돔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 13~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0장과 21장을 함께 붙여서 하나의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선민에게 성전을 파괴하려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영이신 하나님을 관계하는 인격적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형태로 관계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 파괴적

영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선민 됨을 성취시키고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장치였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에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 임마누엘의 예언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도 바르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보전되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성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영성 또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전 파괴적 영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성전을 물리적으로만 파괴하였습니다. 선민 중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성전 파괴적 영성을 지닌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단순히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의 예배당은 성경 어디에서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가 외국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회당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예배당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공교회(公敎會)의 개념으로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민들의 성전 파괴적 영성을 우리에게 맞추어 본다면 '십자가 복음 파괴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복음을 파괴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영성인데 이 관계에서 십자가 복음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곧 십자가 복음을 파괴하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20장의 예언은 구스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애굽의 멸망은 그 자체의 죄악보다는 선민들의 영향이 큽니다. 이사야는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민 남 왕국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BC.670년에 앗수르의 에살핫돈 왕에 의해서 애굽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겉옷을 벗은 채로 속옷만 입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

다만 당시 풍습으로도 속옷만 입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 것 같습니다. 당시의 속옷은 우리가 입는 속옷과 달리 통으로 짠 것으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삼 년 동안 앗수르의 포로가 될 애굽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을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앗수르가 패권 국가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이 패권 국가가 되는 과정을 젖혀둔 채 최종적으로 망하는 단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바벨론이 들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남 유다의 선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 유다가 가진 영성의 문제는 앗수르의 위협에 의한 두려움과, 애굽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게 하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영적 증상이었습니다. 앗수르의 위협을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강력하게 느껴서 벌벌 떠는 심정과,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드러내는 선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을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서 느끼시는 영적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21장 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100~150년 뒤에 바벨론에게 있을 일이지만 너무나 참혹하여 이사야는 요통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유다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민 유다와 굳이 바벨론이 비교되는 이유는 성전에 대한 영성 때문입니다. 유다가 훗날 바벨론이 저지를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이미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축물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지만, 존재 의미 차원에서 보자면 이미 선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건물은 있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과 다름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의미를 파괴하자 앗수르가 온 나라를 뒤덮을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처럼 느꼈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애굽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성전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선민다움은 성취될 수 없고 선민다움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민다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배우자에게 뭘 먹을지 묻는 것이 당연했으나, 시부모님이 계신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드시고 싶은 것을 묻게 됩니다. 다른 예로 신혼부부가 살다가 아기를 갖게 되면 이들의 삶은 부부 중심으로부터 아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우선시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조세계의 일들을 마음에서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배우자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차린다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 왕국 유다가 앗수르에 대해 가져야 하는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강력한 앗수르의 군대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느꼈다면 평강과 만족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앗수르를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만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애굽을 더 큰 도움으로 여겨 의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성전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는 성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몸으로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하거나 집안에 있을 때에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선민의 삶에서 생활화되기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직접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성전에 대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방법이었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전을 생활화하겠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 생활화가 사라지자 성전 존재의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보다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각하며 어린 양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유지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만둠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의 심정으로 선민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유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민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훗날 성전을 파괴하게 될 바벨론에게 향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선민들이 의미적으로는 성전을 파괴하여 성전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우선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소한 일들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이러한 괘씸한 모습을 깨우치시고자 앗수르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앗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애굽을 의존하며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씨가 말라도 사업이 망해도 별별 일이 다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하자면 사업의 문제 같은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내 몸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지면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론적 말씀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성전 곧 십자가 생활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조차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바벨론 멸망과 똑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20장에서는 그렇게 의존하던 애굽조차 엉덩이를 다 드러내는 창피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선민들의 마음가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1장 하반부에 나타나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두마는 에돔의 한 성읍입니다. 따라서 두마의 멸망은 곧 에돔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두마와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남 유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쌍둥이 자녀중의 장남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쌍둥이 중에 차남인 야곱을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장남 에서는 약속의 바깥에 두셨습니다.
아라비아는 드단과 게달의 후손들로 언급됩니다. 드단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구스 출신의 여인 그두라를 후처로 받아들여 낳은 아들입니다. 게달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출신의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즉 두마와 아라비아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약속의 바깥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사야가 이들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남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후에는 드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 다시 야곱만을

택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었지만 이들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앗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 왕국 유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거의 천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선민의 역사가, 택함 받지 못한 족속들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한 성읍인 두마와 게달과 드단의 아라비아는 속수무책으로 앗수르에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앗수르를 두려워하는 모습과 선민들의 모습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있는데, 선민이 이방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차별화는 오직 성전 곧 십자가 생활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만 약속을 받은 선민으로써의 삶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시부모님이 와 계셔도 그 분들의 취향을 살피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일을 우선시한다면 선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업이 위태롭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성전 파괴의 영성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크게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십자가의 존재의미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십자가는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민과 이방민족의 차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을 파괴할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적 영성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십자가 복음을 파괴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론적 말씀을 실감하고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